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배워야 할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포지움 중에서는 짧게나마 한국을 소개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강릉의 오죽헌, 선교장 그리고 낙산사와 설악산을 관광하였으며, 저녁의 만찬에서는 한국의 전통 춤사위를 주제로 공연이 있었는데 많은 질문을 해오는 외국인들에게 긴 역사와 문화가 있는 한국의 모습을 다소나마 전할 수 있어서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은 심포지움 준비위원장이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철립 박사님을 도와 작년 12월부터 심포지움을 기획, 준비하면서 학술발표회에 참가하는 입장에서 준비하고 손님들 맞이하는 입장이 처음 되고 보니 지금까지 고분자학회 살림과 여러가지 학술대회를 꾸려오신 여러 박사님들의 수고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본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여러 달을 수고하신 최철립 박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해드리며, 저널이나 책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세계적인 학자들과 학문적인 토론뿐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 대해서도 직접 대화를 나누고 나이와 국적을 넘어 친교를 맺을 수 있었던 이번 심포지움이 영원히 멋진 기억으로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2년후 러시아 Volgograd에서 열릴 예정인 2001년 제3회 심포지움에서는 더 한층 진보한 고분자 과학의 첨단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하이브리드센터 이상수〉

일본 고분자학회를 다녀와서

일본 고분자학회의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정기학술발표회인 48th Symposium on Macromolecules(第48回 高分子討論會)이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일본 Niigata의 Niigata University에서 열렸다. 본 학회와 일본 고분자학회 사이의 우호 증진을 위하여 마련된 Young Scientist Exchange Program에 의거하여 봄 학회는 일본측 학자들이 우리 학회에 참석하고 가을 학회에는 우리측 학자들이 일본 고분자학회의 고분자토론회에 3명씩 교대로 참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본부를 대표하여 경희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의 최동훈 교수, 충청지부에서는 한국화학연구소의 김은경 박사, 그리고 대구·경북지부에서 본인이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일본 고분자학회의 가을 학회는 고분자토론회로 명명되어 봄 학회에서의 논문발표가 12분 발표에 3분 질문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15분간 발표 후 10분간의 토론 시간을 갖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좌장은 10분간의 토론 시간을 책임지고 청중들의 질문을 유도하였으며 그래도 질문이 없을 경우 본인이 메모한 자료를 중심으로 주어진 시간을 끝까지 채우려고 노력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고분자토론회에는 2,7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1,60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구두발표와 Poster발표의 비율은 반반이었다. 구두발표와 Poster발표 시간대를 달리하여 중복을 피하는 본 학회와는 달리 일본 고분자학회의 논문발표 운영상의 특징은 구두발표와 Poster발표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점이다. 구두발표는 16개 회장에서 아침 9시경에 시작하여 오후 6시경에 끝나는 식으로 전 회장에서 계속 발표가 있었고 Poster발표의 경우 체육관에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7일은 오후를 2회 분리) 진행했으며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홀, 짝

으로 발표자의 대기시간(40분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Poster 발표장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볐으며 구두 발표장의 경우 첫날은 많은 청중들이 참석했으나 둘째 날부터는 특별한 회장을 제외하고는 30명 내외의 청중들이 발표를 들었는데 이것은 본 학회와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본 학회의 이번 추계 논문발표회 논문발표수는 총 642편으로 일본 고분자토론회의 발표논문수의 40%를 넘어 있는데 발표논문의 편수만을 인구대비로 비교하여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고분자학회에서 배포하는 책자는 A4 용지 한 장 분량에 논문 3편의 초록이 게재된 영문판인 Polymer Preprints, Japan이 있고 전체 발표 일정표, 특강의 요약문, 발표자 색인이 있는 책자(Vol. 48, No. 6), 그리고 발표분야별로 묶은 요약집(발표논문 한편 당 2 pages; Vol. 7~14)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연구하는 아세틸렌 유도체들의 전이금속을 사용한 중합 분야에서만 약 30여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촉매 개질, 입체규칙성 중합, 고결정성을 갖는 중합체 합성, Living 중합 등의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이 분야를 연구하는 group이 본인이 속한 group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이 아쉽게 생각되었다.

고분자토론회 이틀째 저녁에는 간친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미국 Univ. of California 화학과의 M. Goodman 교수, 태국 Mahidol Univ. 화학과의 S. Bualek-Limchareon 교수, 그리고 본 학회에서 파견된 3명을 같이 소개해 주었다. 간친회장에서 만난 일본 고분자학회 회장인 동경공대 S. Nakahama 교수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셨고 앞으로 한·일 고분자학회간의 더 많은 교류를 언급하셨으며 특히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발표 교류계획을 이야기하셨다.

학회가 개최된 Niigata는 Niigata항을 중심으로 발달한 항구 도시로서 니기타시의 중심부로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 일명 물의 도시라고도 한다. 예로부터 유명한 술과 맛 좋은 쌀, 싱싱한 해산물 등이 유명했다고 한다. 1955년 대화재와 1964년의 대지진으로 옛 모습이 많이 파괴되었다고 하며 이 후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도로가 확장되고 현대적인 빌딩이 들어서면서 완전한 현대도시가 되었다고 한다. 니기타시의 인구는 약 50만명으로 중규모의 도시이나 니기타현의 현청 소재지이며 내륙 및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중심가에 있는 반다이시티, 현정기념관, 몇 개의 신사, 그리고 니가타역에서 약 1시간 거리로 동해에 면한 온천지대인 진켄미네(神劍峯)를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끝으로 금번 고분자토론회 참석과 관련하여 사전 연락과 세심한 배려를 해준 일본 고분자학회 사무국 차장인 H. Oh-Hashi씨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경일대학교 교양학부 제갈영순〉